



연간 보고서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 2019년



아프리카 배냉의 아이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교회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ACN과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비는 하느님의 본성입니다. 바로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하느님의 권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교황청 재단 ACN을 통해 매년 거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관대함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이 심판의 시간 속에 당신의 자녀와 당신의 교회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보다, 하느님의 자비가 더 크십니다.

우리는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뿐입니다. 여러분의 관대한 사랑으로, ACN은 2019년에 전 세계 1,162개 교구에서 5,230건의 사업을 지원하며, 세계 곳곳에서 하느님 자비의 사업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인 2018년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ACN 지부들이 모금 활동을 펼치는 23개 국가의 많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여전히 높은 금액의 기부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안일함과 자기만족으로 2019년을 되돌아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의 여파로 그 어느 때보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을 것임

을, 우리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ACN에 지원을 요청하며 우리 재단의, 또한 교회의 정체성인 살아있는 자선과 자비의 실천을 호소하는 일도 많아질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이 세상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전능하신 하느님 권능의 표징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으로 일치하며, ACN의 모든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ACN 수석대표
토마스 하이네겔던

Thomas
Heine-Geldern

여러분의 후원과 사랑이 전해진 곳

♥ 건설 지원 1,315건

전체 건설 지원 사업 중 3분의 1은 중동 지역에서 진행했으며, 그리스도인 난민 가정을 위한 주택 및 성당, 수도원, 사목 센터 등의 재건과 수리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 밖의 건설 지원 사업 대부분은 아프리카의 성당과 사제관, 피정 센터 등을 위해 진행했습니다.

♥ 미사예물 1,378,635회 지원

미사 약 140만 대, 이는 2019년 한 해 동안 세계 곳곳에서 23초마다 ACN 후원자 여러분의 지향이 담긴 미사가 봉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ACN은 미사 예물을 통해 전 세계 가톨릭 사제 414,582명 가운데 10명당 1명의 사제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ACN이 가장 많은 미사 예물을 보낸 곳은 아프리카 교회로, 전체의 약 38%에 달합니다.

♥ 신학생 16,206명 지원

ACN은 전 세계 가톨릭 신학생 115,328명 가운데 7명당 1명의 신학생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한 신학생의 수는 대륙별로 아프리카(8,039명), 동유럽(3,254명), 라틴 아메리카(3,061명) 순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에도 다시금 신학생들의 양성과 성숙한 내적 성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수녀 13,862명 사도직 수행 및 훈련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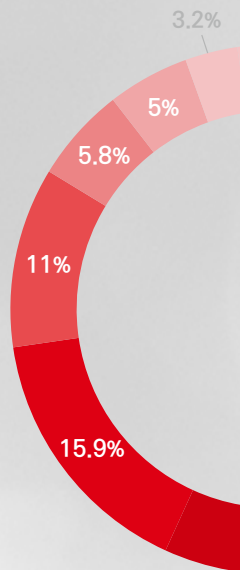
대부분 수도자 양성 및 연학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며, 수녀 4,416명과 수련자 1,035명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성 수도자를 위한 생계 지원은 활동 수도회 소속 수녀 3,529명과 봉쇄 수도회 소속 수녀 2,190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 사목활동을 위한 운송수단 663건 지원

자동차와 오토바이, 자전거, 소형 선박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운송수단 지원 사업은 2019년에도 사제, 수도자, 교리교사들의 사목 및 선교 활동을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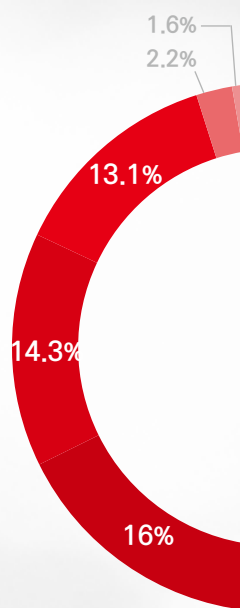
지원 사업 별 예산 비율

- 건설 지원 24%
- 난민구호 및 긴급 지원 16.8%
- 사제 및 수도자 양성 지원 16%
- 미사예물 지원 15.9%
- 평신도 신앙교육 지원 11%
- 사목활동 위한 운송수단 지원 5.8%
- 여성 수도자 지원 5%
- 가톨릭 미디어 지원 3.2%
- 종교서적 및 출판 지원 2.3%



지원 지역 별 사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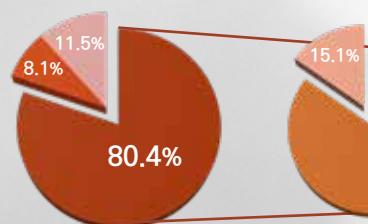
- 아프리카 29.6%
- 중동 22.1%
- 아시아 16%
- 중부 및 동유럽 14.3%
- 라틴 아메리카 13.1%
- 국제적 2.2%
- 서유럽 1.6%
- 오세아니아 0.9%
- 북아메리카 0.2%



예산 사용 내역

전체 예산 (1억 1120만 유로)

- 사목활동 연계 지출 80.4% (8940만 유로)
- 운영비 8.1% (900만 유로)
- 모금 및 후원관리 11.5% (1280만 유로)



2019년 한 해 동안 총 5,230건의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2019년에는 2018년보다 211건 더 많은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ACN에 들어온 사업 신청과 지원 요청은 전년도보다 증가하여 총 7,154건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중 4분의 1이 넘는 약 2천 건의 사업을 반려해야 했습니다. 사업별 평균 지원 금액은 14,535유로(약 1900만 원)입니다.

ACN은 전 세계 139개국에서 1,162개 교구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교구 3,017개 가운데 3분의 1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ACN은 또한 교리교사 24,000명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여러 다양한 언어로 종교 서적을 출판하여 사람들이 하느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느님께 기도하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신앙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2019년에도 가장 많은 종교 서적과 출판물을 지원한 지역은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전체 지원금의 24%는 건설 지원 사업에 쓰였습니다. 이를 뒤따르는 것은 난민구호 및 긴급 지원 사업이며, 사제와 수도자 양성 및 훈련 지원이 그 다음입니다.

기부금과 유산 증여를 통한 수입은 총 1억 630만 유로(약 1382억 원)입니다. 전년도인 2018년의 이월 기부금 490만 유로가 더해져, 총 1억 1120만 유로(약 1445억 원)를 ACN의 사업과 활동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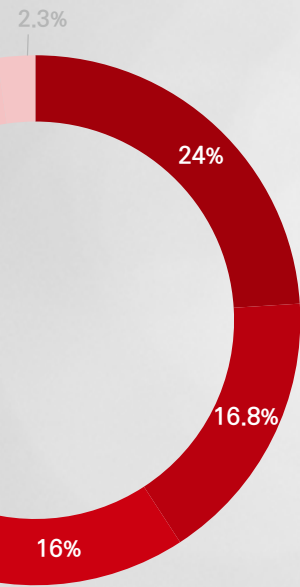
전체 예산의 80.4%인 8940만 유로(약 1162억 원)는 교회의 사명을 위한 사목활동 연계 지출로 이어졌습니다. 그중 84.9%인 7590만 유로(약 987억 원)는 전체 신청 사업 7,154건 중 5,230건의 사업에 재정 지원을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사목활동 연계 지출의 나머지 15.1%를 차지하는 1350만 유로(약 175억 원)는 세계 곳곳에서 박해받고 고통받는 교회의 어려움을 알리고 지지하는 활동에 사용되었습니다.

필수 운영비는 900만 유로(약 117억 원)로 전체 지출의 8.1%이며, 모금 및 홍보 활동 관련해서는 나머지 11.5%인 1280만 유로(약 166억 원)를 지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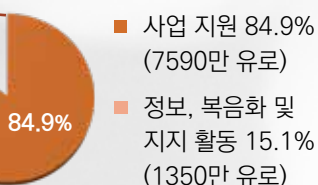
2019년 유산 증여를 통한 수입은 2010만 유로(약 261억 원)로 전체 수입의 18.9%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유산 증여는 교회를 위한 여러분의 지원과 기부 중에서 다시금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고통받는 교회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사업 협력자들과 함께, ACN은 세상을 떠나신 모든 기부자 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ACN 연간 보고서는 국제본부 및 23개국 지부의 보고자료를 취합한 것이며 KPMG의 감사와 검토를 받았습니다.** 2019년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CN 한국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churchinneed.or.kr 또는 구글, 네이버에 '고통받는 교회 돕기'를 검색해 보세요.

*2019년 기부금 외 기타 활동(종교서적 및 성물 판매 등)으로 얻은 수입은 350만 유로(약 4억 5500만 원)
**환율: 1유로=약 1300원



사목활동 연계 지출



숫자로 보는 결과

- ◆ 전 세계 **23개국**에서 모금 활동을 위한 지부 운영
- ◆ 전 세계 **33만 명** 이상
- ◆ 기부, 유산 증여 등을 통한 총 수입 106,309,350유로(약 **1382억 원**)
- ◆ 2018년도 이월 기부금 490만 유로 (약 **63억 원**)를 2019년에 사용
- ◆ 전 세계 **139개국**에서 사업 협력자들과 함께 2019년 총 **5,230건**의 사업 지원
- ◆ 전체 예산의 **80.4%**가 사목활동 연계 지출



순교와 생존

2019년, ACN은 지원 지역 중에서 다시 한번 아프리카와 중동 지원에 주력했습니다. 2018년과 달리 중동에서는 이라크보다 시리아에 집중하며, 시리아에 760만 유로(약 99억 원) 그리고 이라크에 560만 유로(약 73억 원)를 지원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IS(다에시)는 이라크 카라코시에서만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성당 및 교회 11개와 시설 70개를 훼손하고 불을 질렀는데, 전통적으로 이 지역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중심이 된 곳들입니다. ACN은 2018년에 이라크의 그리스도인이 고향 땅인 니네베 평원으로 돌아오면서 이들의 집을 재건한 이후, 2019년에는 성당 및 교회 시설 복원과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지원 사례로 이라크에서 가장 큰 그리스도교 교회인 카라코시의 알 티히라 성당을 재건했습니다. 시리아 내전은 2019년에도 끝나지 않았는데, ACN의 지원 목적은 다름 아닌 시리아에 그리스도인이 남을 수 있도록 이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지금 새롭고 위험한 테러의 양상이 물결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북부의 교회는 이미 순교자들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하라 사막 남쪽의 사헬 지대 전역에 걸쳐 많은 선교사와 교리교사가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으로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한 박해와 억압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젊은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ACN은 나이지리아와 카메룬, 부르키나파소에서만 300만 유로(약 39억 원)의 예산을 지급하여 다양한 규모의 여러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ACN의 우선 지원 국가 중 하나인 콩고민주공화국에는 지난해 330만 유로(약 43억 원)를 지원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새로 부상한 ACN의 우선 지원 국가 중 한 곳입니다. 베네수엘라는 한때 부유했으며 잠재적으로 번창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현재 파산한 정치 체제와 기본 생필품 및 의료 서비스의 결핍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많은 사람에게 이런 안전 장치를 제공하고 있는 유일한 기관은 바로 교회입니다. ACN은 라틴 아메리카의 또 다른 국가 브라질에서도 많은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브라질 교회는 신흥유사종교에 의한 피해가 극심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국가로 아시아 지역에는 파키스탄과 인도가 있습니다. 두 나라는 각각 이슬람교와 힌두교 극단주의에 의해 그리스도인의 삶이 위협받고 있어, ACN의 우선 지원 국가에 포함되었습니다.

